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25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채소연구팀장	이광주	☎ 760-745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작지만 새로운 소득작목 육상… ‘미니홍’ 농가 실증

- 제주 당근 주산지 구좌지역 2농가 0.2ha서 미니 당근 비교 재배 -
- 재배부터 시범판매까지…고부가가치 소형 채소 보급 가능성 확인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‘작은 채소’에 대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해 미니당근 ‘미니홍’의 농가 현장 실증에 착수한다.

○ 이번 실증은 ‘미니홍’의 재배 특성과 생산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판매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고,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샐러드 등 신선편이 시장 확대로 한 번에 먹기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소형 채소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2024년 1월 품종 출원한 ‘미니홍’의 농가 보급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‘미니홍’은 생육기간이 80일 정도이며, 근장이 13cm 내외로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‘베이비’ 품종(17cm)보다 짧다. 뿌리 무게는 약 50g으로 일반 당근의 1/4 수준이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제주 당근 주산지인 구좌지역 2농가, 0.2ha 규모에서 ‘미니홍’과 ‘베이비’ 품종을 비교 재배한다.

○ 재배 과정에서 품종별 생육 및 수량 특성을 조사하고, 생산

된 당근은 11월부터 시범 판매해 소비자 반응과 시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 결과를 ‘미니홍’의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. 향후 생산성과 시장성이 확인되면 소비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미니 채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광주 채소연구팀장은 “농산물도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와 이용 편의성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이번 실증을 통해 ‘미니홍’의 생산성과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겠다”고 말했다.